

<기획 논문 - 근대 중국의 지속과 재편>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화교 사회의 변동

이정희*

목차

- I. 서론
- II. 노구교사건 직후 범한생 총영사의 동태
- III. 범한생 총영사의 각 영사관 및 화교사회단체 재편
- IV. 결론

I. 서론

범한생(范漢生)은 1934년 11월 남경국민정부 경성총영사로 착임한 후 1941년 12월 일본 고베총영사로 이임하기까지 7년간 경성총영사를 지낸 중국의 외교관이었다.

그가 경성총영사로 부임한 때는 만주국이 수립되고 일본의 화북 침략이 노골화 되던 시기로 중일 간의 마찰과 충돌이 한층 격화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그는 1937년 7월 노구교사건 이후 일본의 적국의 국민이 된 조선화교

*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2-A00002).

의 절반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태 때도 경성총영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점령지에 수립된 친일 중화민국 임시정부와 왕정위(汪精衛) 남경 국민정부 하의 경성총영사로도 계속 근무했다.

그의 경성총영사 재임 7년간은 중일관계, 조선화교를 둘러싼 격동의 시기 그 자체였다. 노구교사건 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개석 국민정부의 주일 대사관과 영사관은 모두 폐쇄되고 주재 외교관이 전원 귀국한 반면, 범 총영사는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채 임시정부의 경성총영사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했다.

장개석 국민정부는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한 범 총영사를 ‘중화민족 최고의 한간’으로 지칭하면서 격렬하게 비판했을 뿐 아니라 그와 가족의 체포령을 내리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도조히데키(東條英機) 수상은 1943년 6월 25일 범 총영사를 훈3등서보장(勳3等瑞寶章) 수여를 천황에게 상신하여 재가를 받았다.¹⁾ 서보장은 일본의 훈장 가운데 육일장(旭日章), 보관장(寶冠章)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는 훈장이다. 서보장 수여자의 대상은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공무 또는 공공적인 업무에 장기간에 걸쳐 종사하여 공로를 쌓은 자로 주로 일본인에게 수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국인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범 총영사가 이 서보장을 받은 것 자체가 그의 행적이 얼마나 일본의 국가이익에 부합했는지, ‘친일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범 총영사를 서보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노구교사건 직후 조선화교 및 영사관원을 잘 통솔하여 화교의 귀국을 막고 불상사 발생을 방지했다는 점. 둘째, 북평(北平, 북경)에 성립된 중화민국임시정부 지지선언과 총영사관에 오색기를 게양한 점. 셋째, 범 총영사의 가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임시

1) 內閣總理大臣東條英機(1943.6.26), 「元神戸駐在中華民國總領事范漢生敍勳ノ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10113472800.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화교 사회의 변동

정부 참가를 선언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는 점. 넷째, 1940년 3월 왕정 위 남경국민정부 수립 후 곧바로 조선화교를 인솔하여 신정부에 참가한 점. 다섯째, 신동아건설과 중일친선 재휴를 위해 진력하였으며, 1943년 4월 고베총영사로서 공직을 마치면서 공사로 명예 진급하여 퇴관한 점.²⁾

또한 1958년 대만에서 발행된 『華僑志-韓國-』은 범한생에 대해 “국가 의 영욕(榮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망각, 교포의 생사를 추호 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³⁾

이러한 범 총영사의 친일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연구에서 언급되었 다. 야스이 산키치(安井三吉, 2005)는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지지 선언과 그의 주도로 경성총영사관과 각 영사관이 오색기를 게양했다는 사실, 영 사관과 화교단체의 재편에 대해 개략적으로 분석했다.⁴⁾ 이정희(2007)는 범 총영사 주도로 각지의 중화상회를 연합한 여선중화상회연합회(旅鮮中華商會聯合會)를 결성하고, 조선 화교소학의 교육내용을 반(反) 장개석에 근거한 ‘친일반공’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밝혀냈다.⁵⁾ 기쿠치 가즈다카(菊池一隆, 2011)는 노구교사건 직후 조선화교의 임시정 부지지 선언의 과정을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 석했다.⁶⁾ 이은상(2017.1)은 원산 영사관과 원산화교의 임시정부지지 선언 과정을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했다.⁷⁾

2) 內閣總理大臣東條英機(1943.6.26.), 「元神戶駐在中華民國總領事范漢生敘勳ノ件」, 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10113472800.

3) 華僑志編纂委員會 編, 『華僑志-韓國-』, 1958年, 169쪽.

4) 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 青木書店, 2005, 250-253쪽.

5) 이정희, 「중일전쟁과 조선화교: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35,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7.9, 110-111, 118쪽.

6) 菊池一隆, 『戦争と華僑』, 汲古書院, 2011, 291-298쪽.

7) 이은상, 「중일전쟁 시기 원산화교의 동향과 화교경제」, 『사총』 90, 고려대학교사학회, 2017.1, 130-132쪽.

상기와 같은 연구에 의해 노구교사건 직후부터 조선화교가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거의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 총영사가 왜 임시정부를 갑자기 선언하게 되었는지, 경성총영사관 오색기 계양 과정의 조선총독부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선의 영사관 재편 과정에서 일부 영사관원 가운데 귀국하지 않고 잔류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범 총영사 주도로 조선화교가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미해명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범 총영사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이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노구교사건 발발 이후부터 1940년 3월 왕정위 남경국민정부 수립 이전까지, 즉 중화민국임시정부 하의 경성총영사관 및 각 영사관의 당안(檔案)은 제대로 정리, 보관되어 있지 않다. 왕정위 남경국민정부 하 경성총영사관과 각 영사관의 당안은 남경에 있는 제2역사당안관에 소장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총영사관 및 각 영사관 그리고 조선화교 관련 사실은 조선총독부측의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가 발행한 『治安狀況(치안상황)』 및 『思想ニ關スル情報(사상에 관한 정보)』⁸⁾, 조선총독부가 일본 외무성 및 척무성(拓務省)에 보고한 문서(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아시아역사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그리고 국가기록원 소장의 조선총독부외사과 문서는 상기의 과제를 해명하는데 귀

8)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는 치안과 관련된 첩보 사항을 정리하여 월 수차례 『治安狀況』의 명칭으로 대외비로 발행했다. 『治安狀況』의 발행은 노구교사건 발발 이후 발행 빈도가 높아졌으며, 적국의 국민인 조선화교와 남경국민정부의 조선 각 영사관 관련 내용이 증가했다. 경무국은 발행한 『治安狀況』을 한데 모아 경성지방법원에 정기적으로 발송했다. 『思想ニ關スル情報』도 경무국 보안과가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며 『治安狀況』과 같이 경성지방법원에 정기적으로 발송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경성지방법원에 발송된 『治安狀況』과 『思想ニ關スル情報』의 자료를 모아 아카이빙한 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문서'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중한 사료라 할 수 있다. 단, 조선총독부측의 자료만 이용하면 사실의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으므로 당시 중국의 영사관 관원이 쓴 수기와 글 등을 참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Ⅱ. 노구교사건 직후 범한생 총영사의 동태

1. 임시정부 지지 선언 독려

범 경성총영사는 노구교사건 발발 직후 화교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진력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7월 13일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과 경무국장, 경기도지사를 각각 방문하고 화교 보호를 요청했다. 이어 조선 내 각 영사와 중화상회에 “신문의 과대보도에 편승하여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지마라”는 훈령을 내리고, 본국 귀국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⁹⁾

그러나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조선화교는 7월 29일 통주사건(通州事件) 발발 후 전쟁이 확대 조짐을 보이자 전면적으로 귀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범 총영사는 8월 7일 화교 소유 부동산의 조사를 지시하고, 각 중화상회와 협력하여 화교의 귀국을 지원했다. 8월 11일까지 귀국한 화교는 6,750명으로 전체 화교인구의 1할에 지나지 않았지만, 8월 10일 제2차 상해사변의 발발로 중일 전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때부터 화교의 귀국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10월말까지 귀국한 인원은 3만2,727명으로 전체 화교 인구의 절반에 달했다.¹⁰⁾

범 총영사는 이러한 화교 귀국 사무로 인한 과로로 8월 30일 뇌일혈로

9) 朝鮮總督府警務局(1937), 「在留支那人ノ狀況」, 『昭和十二年 第72回帝國議會說明資料』(북각판,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 不二出版, 1994, 406쪽).

10) 朝鮮總督府警務局(1937), 「在留支那人ノ狀況」, 『昭和十二年 第72回帝國議會說明資料』(북각판,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 不二出版, 1994, 407쪽).

졸도, 손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¹¹⁾ 그는 병상이 약간 호전된 10월 초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의 병으로 자신은 결국 일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오른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그 부위는 다행히 거의 완쾌해 가고 있다. 다만, 작금 건망증이 심해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은 사변 돌발 이래 조선 거주 중국인의 귀국에 만전을 기했지만, 중국 국민정부의 용공항일정책 채택 이래 자신이 견지하는 주의와 서로 맞지 않아 전면적으로 이에 반대하게 되었다. 신상은 잔무를 정리하고 사직한 후 천진(天津) 방면에 영주할 결심을 했다. 천진은 과거 10여 년간 관리 생활을 한 땅이어서 친구도 많은 제2의 고향이다. 자신은 신체가 회복한 후 공산주의 타도를 위해 일본 및 중국인을 위해 진력하고 싶다.”¹²⁾

즉, 범 총영사는 건강과 장개석 국민정부의 용공항일정책을 이유로 사직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가 ‘중국 국민정부의 용공항일정책을 채택한 이래’라고 언급한 것은 장개석이 8월 22일 주덕(朱德)과 팡덕회(彭德懷)를 국민혁명군 제8로군의 정·부(正·副)사령관으로 임명하는데 이어 중국공산당이 9월 22일 중국국민당의 지도(指導)를 수용하면서 국공합작이 사실상 이뤄진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범 총영사는 곧바로 사직을 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했다. 그 배경에는 일본군이 과죽지세로 중국 각지를 점령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항주만(杭州灣)이 11월 5일, 태원(太原)이 9일, 상해가 12일 각각 점령당했다.

이런 가운데 범 총영사는 12월 초 장개석 국민정부 외교관에게 절대로 금기시되던 만주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日, 獨, 伊 3국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 양국은 만주국을 승인했다. 나머지 독일이 이를 승인하면 동

11) 「범한생 총영사 졸도」, 『동아일보』, 1937.9.1.

12)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0.15.), <京城總領事范漢生ノ動靜>, 『治安狀況』 第3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맹적 의미에서도 유라시아에 걸친 방공적 의미에서도 정말로 강력한 평화 확립의 線을 긋는 것이 된다. 자기는 평소의 지론인 공산주의 타과의 견지에서 3국에 신흥 만주국이 참가하기를 바라고, 방공의 강화에 대해서는 失地 만주국의 회복을 바란다.”¹³⁾ 12월 초 단계에서 범 총영사는 장개석 국민정부의 국공합작, 항일, 만주국 불승인 정책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수도 남경이 12월 13일 일본군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고, 14일 점령지 북평에 중화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더욱 표면화 된다.

범 총영사는 12월 17일 마츠자와 다츠오(松澤龍雄) 조선총독부 외무부장, 미나미 총독, 조선군사령부, 조선헌병대사령부를 각각 방문하고 다음과 같이 임시정부 참가를 선언했다. “此際斷乎新政權의 傘下에 馳參하여 親日防共의 大使命 達成에 一□之力を 다할 생각이다.”고 말하면서, “今後事態에 자기의 努力이 日支提携를 위하여 所用된다면 甚히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臨時政府의 首腦者는 全部 내가 外交部에 있던 時代의 先輩뿐으로 知人이 많은 中日支提携 때문에는 渾身の 力を 不惜하는 사람들이다. 나의 去止에 대하여서는 如何했든 病도 나았으므로 1次 歸國” 할 뜻을 밝혔다.¹⁴⁾

이러한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 선언이 경성총영사관의 관원을 통해 장개석 국민정부 및 주일대사관에 전달되면서 주일대사관은 사태의 수습에 들어갔다. 주일대사관은 즉각 범 총영사를 해임하고, 20일 부산영사관의 진조간(陳祖僞) 영사를 총영사(대리)로 임명, 그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진조간 총영사는 19일 가족을 일본에 환송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항으로 돌아온 것은 24일이었다. 주일대사관은 범 총영사 문제 조사를 지원하도록 고베총영사관의 위석경(魏錫賡) 영사

13)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3.), <京城駐在中國總領事范漢生>, 『治安狀況』 第40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14) 『범총영사 신정권에 참가』, 『동아일보』, 1937.12.18.

를 경성총영사관 영사로 겸무하도록 하고, 요코하미총영사관의 임정평(林定平) 부영사를 경성총영사관 영사로 파견했다.¹⁵⁾ 진조간 총영사 일행은 경성총영사관에 부임하기 위해 부산역을 출발하려 했지만, 부산헌병대의 저지를 받아 부임하지 못했다.¹⁶⁾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범 총영사 부인 왕귀정(王貴貞)이 진조간 총영사의 부임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총영사관에 잠복중인 경찰관 및 헌병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왕귀정은 12월 24일 “범한생 북지(北支) 여행을 떠난 후 관원의 태도 급변 냉혹해졌다. 총영사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신임 진 총영사를 절대지지, 자기를 몰아내려 한다. 헌병 및 경찰에서 신임 진 총영사를 부임하지 못하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¹⁷⁾ 조선총독부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미 진조간 총영사 부임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처럼 왕 총영사 부인의 요청도 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범 총영사가 18일 오후 3시 35분 총영사관의 원육당(袁毓棠) 서기와 장문등(張文登) 주사를 대동하고 북평으로 출발한 후부터 27일 귀관할 때까지 화교사회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진남포영사관은 20일 장의신(張義信) 영사 주도로 청천백일기를 내리고 대신 임시정부의 오색기를 게양했다.¹⁸⁾ 장의신 영사는 “(범한생 총영사는) 17일 의연히 떨쳐 일어나 정식으로 국민정부에서 탈퇴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日支의 진정한 제휴를 향해 매진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것은 본 영사가 평소 품어 온 마

15) 朝鮮總督府警務局(1938.1.8.), <中華民國臨時政府ニ對スル鮮內中國公館ノ狀況>, 『治安狀況』第44~47報, 『경성지방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16) 涉運泰 著-朝鮮總督府警務局 譯, 『朝鮮ニ於ケル護旗奮闘經過』, 『朝鮮出版警察月報』 117號, 朝鮮總督府, 1938.4.30.; 菊池一隆, 2011, 293쪽.

17)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진화보고(1937.12.24.), <范漢生夫人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 『경성지방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18) 『鎮南浦領事館にも新國旗懸へる! 張領事は新政權參加』, 『京城日報』, 1937.12.21.;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24.), <鎮南浦駐在領事張義信>, 『治安狀況』第43報, 『경성지방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화교 사회의 변동

음으로 기쁘기 그지없다. 본 영사는 일반 교포에 포고하여 총영사의 의사에 근거하여 신정부에 참가하러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¹⁹⁾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진남포영사관 관할 하의 황해도 해주 및 사리원 중화상회는 20일 임시정부 참가를 공식 선언했으며, 겸이포화상공회는 22일 임시정부 참가를 공식선언하고 오색기를 게양한 후, 조선총독부 관계 당국에 전보를 보냈다. 나남화교민회(羅南華僑民會)와 웅기중화상회도 임시정부 참가를 공식 선언했다.²⁰⁾ 인천의 화상인 왕성홍(王成鴻)은 1936년 5월부터 남경국민정부 인천판사처 고문 및 경성총영사관 고문으로 활동한 인천화교 사회 및 조선화교 사회의 주요한 지도자의 한 명이었다. 그는 범 총영사가 임시정부지지 선언을 한 후인 22일 고문직을 사직했다.²¹⁾ 그는 사직의 이유로 범 총영사와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²²⁾

그러나 이러한 영사관원의 임시정부 지지선언은 범 총영사와 장의신 진남포영사에 국한되었다. 마영발(馬永發) 원산영사는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 선언을 접한 후, “대사관으로부터 하등의 명령 없이 조급히 발표하는 것은 화교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 총영사는 종래 국민정부의 영사로 …… 갑자기 신정권 참가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이라 사료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조혜(金祖惠) 신의주영사는 범 총영사의 신정부 참가 선언을 믿지 못한다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장개석

19) 『鎮南浦領事館にも新國旗懸へる! 張領事は新政權參加』, 『京城日報』, 1937.12.21.

20)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24.), <鎮南浦駐在領事張義信>, 『治安狀況』 第4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 『兼二浦支那人も新政權に參加』, 『京城日報』, 1934.12.24.

21) 그는 범 총영사와 같은 안휘성 출신으로 1896년 경 인천에 이주했다. 이주 당시 부동산을 관리하는 동순공(同順公)의 지배인으로 근무했다. 조선총독부 시정(施政)5년 및 25년 기념식 때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半島華僑界の大立物 蔣政權と縁切り 仁川在住の王成鴻氏』, 『京城日報』, 1934.12.24.).

22)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24.), <仁川辦事處顧問王成鴻>, 『治安狀況』 第4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에게 죄송한 일일뿐 아니라 4억 민중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것으로 이 이상의 배신행위는 없을 것이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증광훈(曾廣勛) 인천판사처 주임은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 선언의 사실을 “완전히 억측 날조된 기사”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²³⁾

화교사회도 마찬가지로였다. 주신구(周愼九) 경성총화상회 주석은 “범한생 총영사 이번의 신정권 참가는 공적 입장에서 표명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 미나미 총독을 면담할 때 북지 신정권의 수립에 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자신은(범 총영사) 공적 입장에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이다.²⁴⁾ 손경삼(孫景三) 인천화상상회 주석은 “중화민국임시정부는 반드시 가림주구에 허덕이는 북지 민중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조선화교의 고향인 산동성이 장개석 국민정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 깃발을 선명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의 총영사의 태도에 관해서도 논평을 피하고 싶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²⁵⁾

즉,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 선언을 추종한 것은 장의신 진남포영사와 진남포영사관 관할의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다른 영사관원과 화교사회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상태였다.

2. 경성총영사관 오색기 환기사건

이러한 상황은 범 총영사가 27일 북평에서 경성에 돌아온 후 완전히 바뀌게 된다. 범 총영사는 경성총영사관에 청천백일기 대신 임시정부의 오

23)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24.), 「治安狀況」 第4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24)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24.), 「治安狀況」 第4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25)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24.), 「治安狀況」 第4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색기를 게양하여, 조선화교의 임시정부 참가를 공식화 하려 했다. 이 사건이 이른바 ‘경성총영사관 오색기 환기사건’이다. 이 사건은 27일 오후 3시 30분 범 총영사의 귀경부터 28일 오후 1시 25분 오색기가 게양될 때까지의 기간에 일어났다. 이 환기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성총영사관 주사로 근무한 왕영진(王永晉)의 수기²⁶⁾와 한성화교소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팽운태(澎運泰)의 수기²⁷⁾, 그리고 조선총독부경무국의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 총영사의 북평행 출장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18일 북평 출발 이전 일본대사관에 사임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직 총영사 신분이 아니었다. 중화민국임시정부는 지방정권에 지나지 않았고 당시 해외에 공관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임시정부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內壽一) 북지나방면군사령관(北支那方面軍司令官)을 방문했다. 데라우치 사령관은 천진에서 범 총영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빨리 조선의 산동·하북 출신 중국인을 신정권에 가맹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말해, 그에 대한 강한 신임을 표명했다.²⁸⁾ 그리

26) 왕영진은 1905년 산둥성 영성(榮成)에서 태어나 1932년 8월 남경국민정부 외교부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1937년 경성총영사관 주사, 인천판사처 주사, 부산영사관과 진남포판사처 주사 등을 거쳐 해방 직전에는 원산 영사로 근무했다. 1945년 12월 소련군에 의해 체포된 후 소련과 중국에서 12년간 전범수용소에서 생활하고, 1980년 대만으로 석방된 후, 1993년 한국으로 귀환해 생활하다 2006년 사망했다. 그의 수기는 왕용진 저, 『그래도 살아야 했다: 悲慘回憶』, 학고방, 2017의 형태로 출판되었다. 그의 수기의 중국인 성명은 중국어 병음발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왕용진’으로 표기된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중국인 성명을 한자음 기준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왕영진(王永晉)으로 통일했다. 따라서 왕용진과 왕영진은 동일인이다.

27) 澎運泰 著·朝鮮總督府警務局 譯, 「朝鮮ニ於ケル護旗奮闘經過」, 『朝鮮出版警察月報』117號, 朝鮮總督府, 1938.4.30. 원래 이 수기는 장개석 국민정부 교무위원회 僑務月報社가 1938년 한구(漢口)에서 발행하는 『華僑動員』 第3·4號에 게재된 것인데,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번역하여 조선출판경찰월보에 게재한 것이다. 팽운태는 1936년 9월 9일 한성화교소학에 가입했다.

28)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전화보고(1937.12.28.), <元中國總領事ノ動靜ニ關

고 범 총영사는 왕극민(王克敏) 임시정부 행정위원장을 방문, 임시정부의 경성총영사로 임명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아냈다.²⁹⁾

범 총영사가 경성을 떠난 18일부터 조선총독부의 오색기 게양 요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 헌병 7~8명이 총영사관에 들어와, “청천백일기는 공산당의 깃발이라든지 지금은 중일전쟁중이어서 인민이 이 깃발을 보면 매우 분개하여 영사관원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빨리 오색기를 게양하여 중일제휴를 실행하고 반공노선으로 진입해야한다.”고 오색기 게양을 강요했다. 그러나 총영사관 관원은 그러한 요구는 국제적인 공의에 어긋난다며 일축했다.³⁰⁾ 또한 헌병대사령부의 관계자가 오색기 게양에 반대하는 왕영진(王永晉) 주사를 개인적으로 불러 임시정부에 높은 보직을 보장받도록 주선하겠다고 하며 회유공작을 폈다.³¹⁾

범 총영사가 27일 오후 3시 33분 경성역에 도착했다. 그는 곧바로 헌병대사령부로 가서 오색기 게양의 협조를 요청했다. 범 총영사는 총영사관에 전화로 청천백일기의 하강을 지시하자, 그의 친척인 뭇모가 멋대로 청천백일기를 하강했다. 이때 한성화교소학의 팽운태(彭運泰) 교원이 곧바로 청천백일기를 빼앗아 다시 게양했다.³²⁾

그날 오후 7시 범 총영사는 일본 헌병 2명의 호위를 받으며 자동차로 귀관하여 환기하려 했다. 이때 소어군(蘇馭群) 부영사는 “우리 영사관은 일본정부 및 각국의 승인을 받아 청천백일기를 게양할 뿐으로 일본정부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오색기를 게양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들은 중국인으로 괴뢰가 된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없다. 만약 국기를 환기하려

스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 『경성지방법원집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29) 『范漢生氏北京入』, 『동아일보』, 1937.12.23.

30) 彭運泰 著·朝鮮總督府警務局 譯, 앞의 자료.

31) 왕용진 저, 앞의 책, 80-81쪽.

32) 彭運泰 著·朝鮮總督府警務局 譯, 앞의 자료.

한다면 우리들은 생명을 걸고 반항할 것이다.”고 저항했다. 범 총영사는 이러한 저항에 직면 헌병과 함께 돌아갔다. 범 총영사는 그날 오후 9시 소부영사를 불러 눈물을 흘리며 환기에 협조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거부당했다.³³⁾

28일 아침 7시 경 범 총영사는 헌병 2명의 호위를 받으며 입관하여 오색기를 게양하려 했지만 관원의 강력한 저지에 직면 실패로 돌아갔다. 오후 1시 20분 경 일본 헌병 20여명이 무장을 한 채로 관내에 진입, 오색기를 게양하고 가 버렸다. 2명의 헌병만이 국기 게양대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관원과 교원 20여명이 2명을 포박하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바로 이때 무장한 일본 헌병 30여명이 관내에 진입, 소 부영사를 비롯 엽준개(葉俊愷) 주사, 팽운태 교원, 동장지(董長志) 경성제대 중국어강사, 양옥지(梁玉芝), 임학농(林學農) 등 6명을 체포했다. 헌병은 6명을 사령부로 압송하고 그날 밤 조사를 했다. 마영발 원산영사가 헌병대사령부에 요청하여 소어만, 동장지, 엽준개 3명은 31일 오후 3시 석방되었다. 정유분(鄭維芬) 경성중화상회 서기 겸 통역의 요청으로 같은 날 팽운태, 임학농, 양옥지 3명이 석방되어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³⁴⁾

팽운태가 기록한 상기의 오색기 환기사건의 경위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의 자료와 거의 일치한다.³⁵⁾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헌병 30여명이 28일 오후 1시 30분 출동한 것은 조선군사령부의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사령관이 헌병대사령부의 니미야 신이치(二宮晉一)사령관에게 지시

33) 澎運泰 著·朝鮮總督府警務局 譯, 앞의 자료. 소어군 부영사는 중국으로 귀국했으며, 진 후 대만에서 제일상업은행(第一商業銀行)의 회장 비서를 지냈다(華僑團體編纂委員會 編, 앞의 자료, 169쪽).

34) 澎運泰 著·朝鮮總督府警務局 譯, 앞의 자료.

35)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9), <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했기 때문이었다. 고이소 사령관은 “경성주재 지나총영사 범한생이 신정권에 투합했기 때문에 영사관 내 다소 동요의 징후가 있다.……귀관은 28일 오후 1시까지 장교가 지시하는 약간 명을 경성지나총영사관에 파견하여 총영사관의 경비 및 범 총영사의 기도 달성을 위해 원조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³⁶⁾ 이 문서로 조선군사령부 및 헌병대사령부가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

오색기 계양 직후, 범 총영사는 아직 임시정부 참가를 선언하지 않은 신의주, 원산, 부산영사관과 인천판사처에 전보를 보내 지지선언을 하도록 했다. 원산영사관의 마영발 영사는 28일 범 총영사의 전보를 받고 입경, 임시정부 참가를 협의했다. 마 영사는 임시정부 참가를 수용하고 원산영사관에 오색기 계양을 지시, 1월 1일 오색기 계양이 이뤄졌다. 부산영사관은 진조간 총영사 대리를 비롯하여 관원 전원이 임시정부 참가를 반대했기 때문에 오색기 계양이 좀체 이뤄지지 않았다. 범 총영사는 12월 31일 자신의 심복인 원육당 경성총영사관 서기와 인천판사처의 동장인(董長印) 서기를 부산영사관에 파견, 진조간 총영사 대리 등 관원 모두가 일본으로 출발한 후인 1월 1일 오전 11시 오색기를 계양했다. 환기 사건 당시 인천판사처 증광훈 주사는 임시정부 참가 반대파로 진조간 총영사 대리를 마중하기 위해 부산영사관에 체류하고 있던 중이었다. 범 총영사는 환기 사건 때 저항하다 체포된 동장지를 인천판사처로 파견하여 왕성홍 전 인천판사처 고문과 힘을 합쳐 12월 29일 오색기를 계양하는데 성공했다.³⁷⁾ 계양 직후인 31일 주일대사관의 허세영(許世英) 대사가 인천판사처에 전보를 보내, 오색기 계양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³⁸⁾

36) 小磯國昭朝鮮軍司令官に二宮管一朝鮮憲兵隊司令官에 보낸 명령(1937.12.28.정오), 『京城駐劄支那總領事援助に關する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1004555300.

37) 朝鮮總督府警務局(1938.1.8.), <中華民國臨時政府ニ對スル鮮內中國公館ノ狀況>, 『治安狀況』第44~47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학교 사회의 변동

신의주영사관은 김조혜 영사 및 관원 전원이 임시정부 참가를 완강히 반대하여 오색기 게양이 12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범 총영사는 1월 3일 원산영사관의 풍문웅(馮文雄) 서기를 파견하여, 4일 오전 8시 오색기 게양을 이뤄냈다.³⁹⁾ 이로써 조선의 각 영사관과 관사처의 오색기 게양은 완료되었다.

이처럼 각 영사관 및 관사처의 오색기 게양이 완료된 후, 조선총독부와 총영사관은 경성과 인천의 각 경찰서를 통해 청천백일기 소지자를 엄격히 수사했다. 한성화교소학의 강당에 있던 청천백일기 1장, 국민당기 1장, 그리고 ‘革命尙未成功’, ‘同志仍須努力’의 글자가 적힌 족자 3점을 1938년 1월 10일 소각했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 적발된 청천백일기 243장, 국민당기 1장, 족자 3점, 청천백일기장(記章) 2장, 장개석사진 1장, 손문 사진 1장 등 총 351점을 소각처분 했다.⁴⁰⁾

Ⅲ. 범한생 총영사의 각 영사관 및 화교사회단체 재편

1. 각 영사관 개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경성총영사관의 오색기 환기사건은 다수의 영사관 원의 반대에 직면, 조선총독부의 무력 지원을 받고 나서야 실현할 수 있었다. 각 영사관의 오색기 게양도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에 반대하는 관

38)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慶尙南道警察部長에 보낸 공문(1938.1.1.), <中國大使館ヨリ來電ノ件>,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39) 朝鮮總督府警務局(1938.1.8.), <中華民國臨時政府ニ對スル鮮內中國公館ノ狀況>, 『治安狀況』第44~47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40)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8.1.15.), <東晉中國人ノ新政權歸屬於ケル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원의 행동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임시정부 참가를 적극 반대한 영사관원의 거취는 임시정부 하 각 영사관 재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오색기 환기사건 때 강력히 저항했던 소어군 부영사, 임학농 소사, 팽운태 한성화교소학 교사를 비롯한 6명은 1월 5일 오전 10시 인천항에서 제36 공동환(共同丸) 기선에 승선, 대련을 거쳐 상해로 귀국했다.⁴¹⁾ 동장지 경성제대 중국어강사는 임시정부 참가로 전향하여 29일 인천판사처에서 왕성홍 고문과 같이 오색기를 계양하는 역할을 했다.⁴²⁾

부산영사관의 진조간 총영사 대리, 정심익(程心益) 부영사 외 관원 4명 그리고 일본대사관에서 파견된 위석갱 영사, 임정평 부영사는 모두 1월 1일 오전 11시 40분발 연락선으로 동경으로 출발했다. 신의주영사관의 김조혜 영사, 장상(張相) 부영사 이하 관원 전원은 범 총영사가 북평에서 경성으로 돌아올 때, 임시정부 참가 권유를 받았지만 완강히 거절하고, 28일 경성총영사관으로 오라는 지령도 무시했다. 김조혜 영사를 비롯한 관원과 가족 일행은 1월 4일 오전 11시 40분 신의주에서 기차로 출발하여 부산 경유로 동경으로 갔다.⁴³⁾

인천판사처의 증광훈은 진조간 신임 총영사를 맞이하기 위해 부산영사관에 가 있었는데, 29일 왕성홍 인천판사처 고문이 전화로 오색기 계양에 대해 묻자, “신정권에 참가할 의사가 없고, 금후 범한생의 밑에서 근무하는 것은 감정상 정결치 않기 때문에 귀국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고,⁴⁴⁾

41) 朝鮮總督府警務局(1938.1.8.), <中華民國臨時政府ニ對スル鮮內中國公館ノ狀況>, 『治安狀況』第44~47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42)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慶尙南道警察部長에 보낸 공문(1937.12.31.), <仁川辦事處員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인천판사처의 서기 동장인(董長印)은 동장지의 동생이었다.

43) 朝鮮總督府警務局(1938.1.8.), <中華民國臨時政府ニ對スル鮮內中國公館ノ狀況>, 『治安狀況』第44~47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학교 사회의 변동

가족을 데리고 고베를 거쳐 귀국했다. 그리고 원산영사관의 호제천(胡濟川) 수습영사, 무문이(繆文彝) 주사도 귀국했다.⁴⁵⁾

이렇게 임시정부 참가를 거부한 영사관원이 전원 귀국하자 조선의 각 영사관은 완전히 범 총영사가 장악하게 된다. 장개석 국민정부는 1월 5일 조선의 각 영사관의 관무를 잠시 정지하는 전보를 발신한 후, 1월 20일 정식으로 폐쇄했다.

조선 각 영사관의 이와 같은 임시정부 참가 상황은 일본의 각 영사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빨랐다. 일본의 영사관 가운데 범 총영사와 같이 임시정부 수립 직후 임시정부를 지지하여 오색기를 게양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영사관원은 없었다. 장개석 국민정부는 일본의 각 영사관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모지관사처(門司辦事處)는 1월 24일, 나고야관사처는 25일, 하코다테관사처는 31일, 요코하마총영사관과 나가사키영사관은 각각 2월 5일, 오사카관사처는 2월 7일, 그리고 주일대사관은 6월 1일 폐쇄됐다.⁴⁶⁾ 그리고 대만의 대북총영사관(臺北總領事館)은 2월 5일 폐쇄됐다.⁴⁷⁾ 한편, 임시정부의 외교공관이 일본에 정식으로 설치된 것은 폐쇄 후 조금 시간이 지난 뒤였다. 하코다테관사처는 1938년 3월 3일, 도쿄관사처는 4월 12일, 고베관사처는 8월 1일, 나가사키관사처는 12월 24일, 요코하마관사처는 1939년 4월 5일이었다.⁴⁸⁾ 조선과 같이 총영사관과 영사관의

44)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9.), <仁川辦事處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45) 楊紹權, 「駐朝鮮各地領事參加偽政權의經過」,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全國委員會文史和學習委員會 編, 『文史資料選輯合訂本』第48卷(總140-142輯), 2011, 461쪽.

46) 出口晴久, 「日中戰爭期における神戸華僑の實態と動向」, 『東洋史論』第9號, 東アジア史研究會, 1996.10, 36쪽. 단, 경성총영사를 지낸 왕수선(王守善)은 장개석 국민정부 고베 총영사로 근무하다 고베총영사관이 폐쇄된 후 상해로 일시 귀국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고베관사처 주임으로 착임한 사례는 있었다.

47) 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 日本-臺灣-朝鮮』, 青木書店, 2005, 241쪽.

48) 出口晴久, 앞의 논문, 36쪽.

명칭이 아닌 판사처의 명칭으로 설치된 점과, 조선의 각 영사관보다 설치 시기가 훨씬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범 총영사 및 임시정부를 지지하면서 잔류한 영사관원에 대해 보도록 하자. 범 총영사가 1938년 1월 17일 조선총독부 외사부에 제출한 중화민국임시정부 조선주재 영사관원은 다음과 같다. 경성총영사관의 경우, 총영사는 범한생, 부영사(부재)는 계달(季達), 수습영사는 양소학(楊驪鶴), 주사는 엽준개(葉俊愷)와 엽영청(葉永靑)이 각각 임명됐다. 오색기 환기사건 때 저항한 엽준개 주사는 그대로 주사로 임명되었다. 환기사건 때 저항하다 부상을 당한 왕영진(王永晉) 주사와 왕건공(王建功) 주사는 인천판사처와 진남포판사처의 주사로 각각 임명되었다. 신의주영사관의 영사로는 이전 원산영사관의 영사로 근무했던 마영발이 새롭게 임명되었고, 원산영사관 서기인 풍문웅(馮文雄)이 동 영사관의 주사로 임명되었다. 원산영사관의 영사로는 범 총영사를 가장 먼저 지지선언 한 진남포판사처 주사 장의신(張義信)이 임명되었으며, 양소권(楊紹權)이 동 영사관의 주사로 임명되었다. 부산영사관의 영사로는 범 총영사의 최측근으로 북평 출장 때 동행했던 원육당(袁毓棠) 경성총영사관 서기가 승진 임명됐다.⁴⁹⁾

이렇게 볼 때 새롭게 구성된 임시정부 조선 주재 영사관원은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를 처음부터 지지한 장의신, 원육당, 그리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동조자로 돌아선 마영발, 엽준개, 왕영진, 왕건공 등으로 구성된

49) 범한생 경성총영사가 松澤龍雄 조선총독부외무부장에 보낸 공문(1938.1.17.), 「館員名表」, 『外務部 昭和13年 領事館關係綴』, 국가기록원소장. 양소권은 마영발 영사의 추천으로 원산영사관의 주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부임하기 전 홍콩 매방중학(梅芳中學)의 주임교사로 근무했으며, 1938년 2월 신의주를 거쳐 부임했다. 양소권은 계속 원산영사관의 주사로 근무하다 일본의 패전을 맞았다. 1945년 12월 왕영진 영사와 같이 소련군에 체포되어 중화인민공화국에 인도된 후 전범수용소에서 생활하다 석방되었다. 그는 대만으로 가지 않고 중국에 잔류했다. 왕영진, 양소권 이외에 소련군에 체포된 영사관원은 주관남(周冠南), 곡유성(曲有成), 초명박(初銘璞), 목서근(穆緒根), 정춘성(鄭春成) 등이었다(왕용진 저, 앞의 책, 136쪽).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화교 사회의 변동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엽준개는 1938년 5월 홍콩으로 가서 장개석 국민 정부의 홍콩영사관 주사로 임명되어, 다시 전향했다.⁵⁰⁾ 임시정부 수립 후 인천판사처 고문을 사임한 왕성홍은 1938년 1월 초 다시 동 판사처 고문으로 취임했다.⁵¹⁾

〈표-1〉 조선 각 영사관의 관원 일람표(1937~1945년)

영사관 명칭	1937.7	1938.1	1942.1	1945.8
경성총영사관	총영사 范漢生 부영사 蘇馭群 주사 葉俊愷 주사 葉永靑(37.3) 서기 袁毓棠	총영사 范漢生 부영사(부재) 季達 수습영사 楊嘯鶴 주사 葉俊愷 주사 葉永靑	총영사 林耕宇(51) 영사 洪斌(33) 부영사 黃博羣(45) 부영사 楊紹鶴(54) 주사 王永晉(38)	영사 馮文雄(43.6) 부영사 黃博羣(41.12) 부영사 楊靜泉(44.7) 수습영사 詹泉官(44.7) 수습영사 黃治江(44.2)
신의주영사관	영사 金祖惠 부영사 張相 수습영사 張鏡微 학습영사 李松俠	영사 馬永發 주사 馮文雄	영사 馬永發(66) 주사 馮文雄(30) 주사 鄧俊山(51)	영사 周冠南(43.6) 수습영사 盧禹玖(43.2) 수습영사 曲有成(45.4)
부산영사관	영사 陳祖備 부영사 程心益 주사 曾鼎鈞	수습영사 袁毓棠	수습영사 袁毓棠(47) 주사 宋鈞(27) 서기 王孝儀(27)	총영사대우 胡延極(44.9) 영사 楊嘯鶴(45.2) 부영사 廉定成 수습영사 蔣達泉(44.9) 주사 陳威德(44.9) 주사 胡宗慈(45.2)
원산영사관	영사 馬永發 수습영사 胡濟川 주사 繆文彝 서기 馮文雄	부영사 張義信 주사 楊紹權	부영사 張義信(43) 주사 楊紹權(30) 서기 盧禹玖(38)	부영사 王永晉(43.6) 수습영사 吳業興(43.2) 주사 張文英(44.6) 주사 程忠獻(44.2) 서기 吳蘭如

50) 楊紹權, 앞의 글, 461쪽.

51) 「王氏辦事處顧問に就任」, 『京城日報』, 1938.1.8.

영사관 명칭	1937.7	1938.1	1942.1	1945.8
진남포영사관 /진남포관사처	영사 張義信	주임 王建功	수습영사 劉折(53) 주사 葉永靑(30) 서기 張文英(32) 서기 舒俊(23)	부영사 楊紹權(43.9) 주사 孫國勳(45.2)
인천관사처	주임 曾廣勛 서기 董長印	주임 王永晉	주임 王建功(35) 학습서기 干汶基(21)	수습영사 王孝儀(44.1) 주사 鄧俊山(44.7)

출처: 범한생 경성총영사가 松澤龍雄 조선총독부외무부장에 보낸 공문(1938.1.17), 『外務部 昭和13年 領事館關係綴』, 국가기록원소장; 조선총독부외무과(1942.1.1.), 『在朝鮮各國領事館表』, 『外務部 昭和17年 領事館關係』, 국가기록원소장; 邵毓麟 주한국대표가 외교부에 보낸 공문(1946.5.4), <僞組織駐韓各領事館職員名單>, 『韓國僑務案』, 『外交部檔案』, 대만국사관소장(분류번호 05000, 0670-4460).

주: 1942.1의 괄호안 수자는 나이, 1945.8의 괄호안 수자는 부임 날짜임.

그렇다면 범 총영사에 의해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이들은 어떠한 경위로 귀국을 포기하고 잔류를 결정한 것일까? 인천관사처 주사로 임명된 왕영진은 당시의 결정을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그때는 전국이 항일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적국의 수중에서 적들의 총칼 아래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영사였던 매국노 관한성(范漢生)의 지시를 잠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전에서 승리하게 되면 국민당에게 죄를 자인하고 처벌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⁵²⁾ 즉, 그는 조선총독부의 강압 하에서 범한생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논리를 폈던 것이다.

그의 잔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범 경성총영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들 수 있다. 범 총영사가 남경 외교부에서 근무할 때 왕영진은 외교부 내 부하로 일했으며, 범 총영사의 권유로 국민당에 가입했다. 왕영진은 철저한 국민당 지지자로 범 총영사와 같은 반공주의자였다. 여기에 왕영진은 수기에서 당시 대부분의 영사관원이 광동성 출신으로 산둥성 출신이 대부분인 조선화교를 무시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52) 왕용진 저, 앞의 책, 323쪽.

고 밝힌 것을 보면, 산동성 출신 외교관으로서 교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잔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⁵³⁾ 원산영사관 주사로 임명된 양소권은 노획한 마영발 영사의 꺾에 빠져 민족이익을 배반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전향을 마 영사 탓으로 돌렸다.⁵⁴⁾

그런데 잔류를 결정한 영사관원 가운데 부인이 일본인인 경우가 많았다. 원육당 부산영사는 1942년 1월 영사관 관사에서 일본인 부인인 이시다 치요코(石田千代子), 부인의 조카인 이시다 가네요시(石田兼義)와 함께 거주했다. 장의신 원산영사는 광동성 중산현(中山縣) 출신으로 그의 부친인 장형(張衡)은 어릴 때부터 일본 나가사키에서 상업을 영위하던 화상으로 그곳에서 일본인 여성 야마모토 기쿠(山本キク)와 결혼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장 영사였다. 그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일본인 여성 아라이 토미(荒井登美)와 결혼하여 아라이가(家)의 상속인이 되었으며, 아라이 요시노부(荒井義信)로 불렸다. 그의 자녀는 혜미(惠美), 혜방(惠芳), 문휘(文輝)의 1남 2녀로 1942년 1월 현재 혜미와 원산영사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장의신은 일어에 정통하여 경성총영사관의 통역관으로 들어간 후, 주사, 수습영사로 승진한 인물이다.⁵⁵⁾ 왕건공 진남포관사처 주사의 부인은 일본인 왕다키코(王多喜子)였다. 그는 아들 왕려생(王麗生)과 진남포부 옥정(旭町) 5번지 소재의 관사처 공관에서 함께 거주했다. 그는 하북성 심현(深縣) 출신이었다.⁵⁶⁾

신의주영사관 주사로 임명된 풍문웅(馮文雄)은 부친이 광동성 출신이고 모친은 일본인이었다.⁵⁷⁾ 그리고 1942년 1월 부산영사관의 서기로 임명

53) 왕용진 저, 앞의 책, 95-97쪽.

54) 楊紹權, 앞의 글, 462-463쪽.

55) 조선총독부외무과(1942.1.1.), 「在朝鮮各國領事館表」, 『外務部 昭和17年 領事館關係』, 국가기록원소장; 楊紹權, 앞의 글, 465-466쪽.

56) 조선총독부외무과(1942.1.1.), 「在朝鮮各國領事館表」, 『外務部 昭和17年 領事館關係』, 국가기록원소장; 楊紹權, 앞의 글, 439쪽.

된 왕효의(王孝儀)는 인천판사처 고문인 왕성홍의 아들이었다. 왕성홍은 일본인 부인과의 사이에 장녀 초춘(初春), 장남 효의를 두었다. 그는 경성 총영사관의 서기로 들어가 1944년 1월부터 인천판사처의 주임으로 착임하여 판사처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근무했다. 장녀 초춘은 중일전쟁 직전 상해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전쟁 직후 인천으로 돌아와 인천화교학교의 교사로 근무했다.⁵⁸⁾

이처럼 각 영사관원의 임시정부 지지와 조선 잔류 선택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 가운데 일본인 부인을 두거나 일본인 부모를 둔 영사관원의 잔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당시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중국 각지를 점령하고 장개석 국민정부의 승전 가능성이 낮은 것을 감안, 자신들의 ‘친일’적인 배경이 가족의 신변과 영사관원의 안정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자신들의 ‘친일’적인 배경이 신변안전과 지위보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한다.

한편, 범 총영사는 영사관 조직을 새롭게 개편한 후, 1938년 2월 3일 경성총영사관에서 전국 영사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 참석자는 새롭게 임명된 양소학 수습영사, 마영발 영사, 원육당 수습영사, 왕영진 주임, 왕건공 주임, 장의신 부영사 등 6명이었다. 범 총영사는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훈시를 내렸다. ① 관원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② 장개석 국민정부에 통첩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말 것. ③ 총영사관 및 각지의 관원은 전면적으로 임시정부에 참가한 이상 ‘동양도회의 발양, 우방친목의 증진’에 노력할 것. ④ 모든 관원은 반드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덕을 신봉하고 이로써 입신의 근본으로 삼을 것. ⑤ 본관 및 각 영사관의 사무 처리는 淸, 勤, 愼, 敏의 4자를 기본

57) 왕용진 저, 앞의 책, 95-113쪽.

58) 『半島華商界の大立物 蔣政權と縁切り 仁川在住の王成鴻氏』, 『京城日報』, 1934.12.24.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화교 사회의 변동

으로 할 것.⁵⁹⁾ 즉, 임시정부의 영사관원은 ‘반장친일반공(反蔣親日反共)’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령이었던 것이다.

2. 조선화교 사회단체의 재편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와 각 영사관의 오색기 게양은 조선화교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성중화상회는 총영사관에 오색기가 게양된 직후인, 12월 28일 오후 1시25분부터 2시30분까지 주신구(周愼九) 주석 이하 경성의 각 사회단체(남방회관, 북방회관, 광방회관, 호북동향회)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정부 참가를 둘러싼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경성부내 화교는 아직 장개석 중경국민정부 지배 하의 산동성과 하북성 출신이 많기 때문에 10명만으로 임시정부 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범 총영사에게 보고했다. 범 총영사는 “때가 때인 만큼 산동성과 하북성 교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때 신권정에 귀속할 의지를 표시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하루 빨리 지지선언을 하도록 강요했다.⁶⁰⁾

경성의 화교사회단체가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선총독부는 오색기 게양 때처럼 곧바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28일 오후 3시 30분 본정경찰서(本町警察署)에 주신구 주석, 사자명(司子明) 부주석, 정유분(鄭維芬) 서기 3명을 호출하여 임시정부 참가를 강력히 압박하자, 그들은 이를 수용하여, 경성화교뿐 아니라 조선 전체 화교가 참가하도록 성명서를 발송할 것을 약속했다.⁶¹⁾

59)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8.2.5), <京城中國總領事館ノ動靜其他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60)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8), <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61)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8), <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경성중화상회가 발송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선언문은 “이번 사변은 국민정부의 잘못된 용공항일 등 외국의존 정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우리들 일본 거주 화교동포에게 가장 유감스러운 점이다. 금번 우리들 경성 주재 각 단체 일동은 국민정부를 이탈하여 일치단결 신정부에 가입하고 그 통치하에서 봉공의 성의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제2호 결의문은 “국민정부를 정식으로 이탈하여 범 총영사를 따라 신정부 산하에 가입하여 국가를 위해 한 마음으로 공헌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⁶²⁾ 주신구 주석은 곧바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상회의 공당(公堂)에서 화교사회단체장 12명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임시정부 참가 결의문을 가결하고 이 사실을 각 지역 중화상회에 발송하는 한편, 12월 31일 경성의 각 가정에 오색기 게양할 것과, 왕극민 행정위원장, 일본 수상 등에게 임시정부 참가 전보 발송할 것을 결정했다.⁶³⁾

인천화상상회도 12월 28일 오후 8시 상회 사무실에서 손경삼(孫景三) 주석을 비롯하여 왕성홍, 손지현(孫志軒), 장은삼(張殷三), 손신경(孫信卿), 곽화정(郭華亭)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정부 참가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삼 주석이 임시정부 참가를 제의하자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이 발표한 제4호 성명서는 “인천화교는 12월 28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신정권에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이를 성명함.”이라고 했다. 제5호 전문은 “인천 거주 중화민 국민 일동 신정권 하에서 참가를 맹세하고 장래에도 보호를 간청한다.”고 했다.⁶⁴⁾ 이와 같은 경성중화상회와 인천화상상회의 회의에는 일본 경찰이

62)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9.), <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63)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9.), <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64)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9.), <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화교 사회의 변동

배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강압에 의한 임시정부 참가 결정이나 다름 없었다.

<표-2> 각 지역의 중화민국임시정부 참가 현황(1938.1.8.현재)

도별	각 지역별 임시정부 참가 날짜
경기	경성(28), 인천(28), 영등포(28), 양평(1), 수원(31).(개성, 양주, 진위, 고양, 안성)
충북	충주(29), 괴산(18), 청주(31).(영동, 음성, 보은)
충남	청양(24), 당진(27), 대진(30), 강경(1).(연기, 부여, 서천, 보령, 홍성, 예산, 서천, 아산, 천안)
전북	군산(30), 전주·이리·김제·정읍·남원·부안(30)
전남	영산포(27), 제주도(31), 장성(31), 목포(31), 강진(31), 여광(31), 담양(3), 순천(4)
경북	대구(2).(포항, 김천, 예천)
경남	부산(5).(마산, 진주, 밀양, 통영, 울산, 동래)
황해	해주(20), 사리원(20), 경이포(21), 신천(24), 신막(25), 채평(24), 웅진(27), 곡산(25), 안악(25), 연백(28), 황주(28), 서흥(25)
평남	평양(24).(대동, 순천, 성천, 강동, 용강, 평원, 안주, 개천)
평북	신의주(31), 의주(31), 초산(3), 선천(24), 창성(28).(용천, 철산, 정주, 귀성, 운산, 강계, 자성, 후창)
강원	강릉(31), 주문진(31), 원주(31).(춘천, 통천, 고성, 금화, 철원)
함남	원산(28), 문천(29).(함흥, 함주, 고원, 북청, 단천, 장진, 삼수, 갑산)
함북	나남(22), 응기(23), 회령(21), 어대진(25), 청진(29).(경성, 길주)

출처: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9), <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 8, 『경성지방법원집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그리고 『동아일보』와 『경성일보』의 기사.

주: 괄호 안의 수자는 일자, 괄호 안의 지역은 아직 임시정부 참가를 표명하지 않은 지역.

조선화교 사회의 중심인 경성과 인천의 화교단체가 임시정부 참가를 정식 표명함에 따라 전국의 각 화교단체의 임시정부 참가 성명이 잇따랐다. <표2>는 1938년 1월 8일 현재 임시정부 참가를 공식 발표한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진남포영사관 관할 하의 황해도와 평안남도의 각 지역이 타 도에 비해 임시정부 지지선언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 지역은 경성과 인천이 임시정부 지지를 공식 선언한 12월 28일 이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월 8일 단계에서 화교 거주가 많은 주요 도시인 부산, 대구, 신의주, 평양, 원산, 강릉, 충주, 청진 등은 거의 임시정부 선언을 마

쳤고, 농촌 지역은 아직 선언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임시정부 참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중화사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각지에서 임시정부 참가를 선언한 데는 총영사관의 지시가 크게 작용했지만, 조선총독부의 강압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조선총독부는 임시정부 참가를 표명하지 않는 화교를 '抗日容蘇정권의 앞잡이로 망동하고 있는 자'로 간주하고 적절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위협, 참가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⁶⁵⁾

한편, 조선화교는 기존의 중화사회를 해체하고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모체가 된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는 지역이 있었다. 신민회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국민당과 같은 사상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을 하는 강력한 민중단체의 설립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1937년 11월 24일 북평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것이다.⁶⁶⁾

황해도 화교 약 4천명은 각지의 기존 중화사회를 해체하고 새롭게 각지에 중화신민회를 조직했으며, 각지의 14개 신민회 조직은 1938년 1월 3일 황해도중화신민연합회를 결성했다.⁶⁷⁾ 이러한 조선화교의 신민회 조직 결정에 대해 왕극민 신민회 회장은 격려의 전보를 보내기도 했다.⁶⁸⁾ 이러한 신민회 조직은 황해도 이외에 평안남도, 평안북도 지역에 많이 나타났다. 신민회의 명칭은 아니지만 민회와 화교회의 명칭으로 결성된 곳도 많았다.

65) 「망동의 중국인 엄중히 취제」, 『동아일보』, 1938.1.7.

66)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40.8), 「新民會の概況」, 『高等外事月報』 第13號(1940年8月號)(복각판, 宮田節子 編, 『高等外事月報』, 不二出版, 1988, 510-515쪽).

67) 「中華新民會各地に誕生 海州で聯合會結成」, 『京城日報』, 1938.1.7.

68) 「在鮮支那人が新民會組織 王克敏氏は激動電報」, 『京城日報』, 1938.1.8.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화교 사회의 변동

〈표-3〉 노구교사건 발발 이후 새롭게 조직된 화교의 사회단체

단체명	도명	조직연월일	구역
黃海道中華新民聯合會	황해도	1938.1.3	황해도 일원
中華新民會	황해도	1938.1.3	각군 단위
全州東和會	전라북도	1938.1.15	전주부 일원
群山東新會	전라북도	1938.2.2	군산부 일원
益山僑民會	전라북도	1938.2.8	익산군 일원
平安南道中華新民聯合會	평안남도	1938.1.25	평안남도 일원
平壤中華新民會	평안남도	1938.1.13	평양부 일원
龍川中國僑民新民會	평안북도	1938.1.13	용천군 일원
新義州華僑民會	평안북도	1938.1.15	용천군 일원
慶源中華民會	함경북도	1938.1.6	경원군 일원
龍德中華民會	함경북도	1938.1.8	경원군 용덕면
中華民會	함경북도	1938.1.9	경원군 신아면
旅鮮中華商會聯合會	경기도	1938.2.3	경성부
開城華僑會	경기도	1938.2.10	개성부

출처: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8.2.23.), <新政權歸屬後ニ於ケル中國人ノ動靜>, 『治安狀況』第44~47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범 총영사와 조선총독부는 조선화교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2월 3일 각 지역의 조선화교 단체 대표 22명을 경성에 소집하여 화교단체자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신정권 귀속에 따른 조직 개편에 관해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각지 중화상회를 해체하여 신정권의 예속 하에 상응하는 기관으로서” 개편하려는 데 있었다.⁶⁹⁾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중화상회 체제를 신민회 체제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문제는 당일 화교단체자대표회의 때 논의되었다. 손경삼 인천화상상회 주석이 각 지역의 화교단체의 명칭이 중화상회, 중화신민회, 신민연합

69)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8.1.31.), <京城中國總領事館ノ動靜其他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이 회의에 범 총영사와 조선총독부 관료는 배석하지 않았으며, 일부 영사가 참관했다.

회, 화교민회로 다양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일된 명칭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해주중화신민회연합회 주석인 손학령(孫鶴齡)이 중화신민회 또는 신민연합회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임시정부 수립에 맞춰 기존의 중화상회 조직이 상인에 자격이 한정된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중화신민회연합회회장인 장소문(張少文)도 이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경성중화상회의 주신구 주석은 명칭 통일 문제는 이번에 결정하지 말고 범 총영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자고 말함으로써 보류되었다.⁷⁰⁾ 결국 이 문제는 명칭을 통일하지 않은 채 일본의 패전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며, 신민회 명칭의 조직이 실제로 북평의 신민회 조직과 연계하여 활동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화교단체자대표회의는 총영사관이 작성한 여선중화상회연합회조직대강(旅鮮中華商會聯合會組織大綱)을 22명의 대표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 전국 화교단체의 연합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조직대강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조에 “본 상회연합회는 장정을 결정하여 중화민국임시정부에 품청하고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조직이 임시정부에 귀속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연합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두도록 규정, 이번 회의에서 선거를 실시, 경성중화상회의 주신구(周慎九)가 회장, 인천화상상회의 손경삼(孫景三)이 부회장에 각각 선출되었다.⁷¹⁾

1938년 7월 26일 총영사관의 비준을 받아 정식 결정된 여선중화상회연합회 장정은 총36개 조로 이뤄져 있다. 이 장정 제4조 9항에 “총영사관 및

70)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8.2.5), <京城中國總領事館ノ動靜其他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71)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8.2.5), <京城中國總領事館ノ動靜其他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총독부의 중요 훈령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²⁾ 즉, 이 단체는 중일전쟁시기의 특수상황에서 임시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화교에 대한 지령을 전달하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선중화상회연합회는 조선총독부 및 경성총영사관의 조선화교를 ‘친일’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데 중추적인 사회단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3. 범한생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의 近因과 遠因

여기까지 와서 다시 궁금해지는 것은 범 총영사가 왜 임시정부 참가 지지를 선언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앞에서 범 총영사가 대외적으로 장개석의 용공항일정책 추진이 자신이 가진 이념과 맞지 않아 임시정부 참가를 선언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친일가’로 노구교사건 이후 장개석 국민정부의 항일태도에 불만을 품게 된 것은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다. 범 총영사는 1882년 안휘성 이현(黟縣) 출신으로 이름은 후택(厚澤), 자는 한생(漢生)이었다. 일본의 법정대학(法政大學)을 졸업한 후 봉천학무공소편집장(奉天學務公所編輯長), 연길변무공서외교과1등번역관(延吉邊務公署外交課一等翻譯官), 연길교섭사서동문정번역관(吉林交涉使署東文正翻譯官), 호북도독부외교고문(湖北都督府外交顧問)을 거쳐 1918년 길림교섭서고문(吉林交涉署顧問) 겸 일문(日文) 비서로 임명되었다. 그 후 남경국민정부 수립 후에는 외교부 총무사과장(總務司科長), 정보사제4과장(情報司第四科長)을 지냈다.⁷³⁾ 1934년 11월 경성총영사로 부임하기 이전, 그는 동

72) 旅鮮中華商會聯合會(1938.7.26), 『旅鮮中華商會聯合會章程』,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

73) 徐友春 主編, 『民國人物大辭典 增訂版 上』, 河北人民出版社, 2007, p. 849. 메이저대학(明治大學) 출신이라는 설도 있다.

북3성 지역, 남경국민정부 외교부에서 주로 일본 관계의 업무를 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교부 정보제4과는 일본 담당부서로 ‘일본과장’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정보사제4과장으로 근무할 때의 외교부장은 왕정위(汪精衛)였으며, 당시 범한생은 국민당 당원이었다.⁷⁴⁾

그가 경성총영사로 부임할 때 일본의 외교관 가운데 조선총독부에 그를 잘 부탁한다고 공문을 보내는 외교관이 적지 않았다. 1934년 당시 상해공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호리우치 다테키(堀内干城)도 그중의 한명인데 범 총영사가 1937년 12월 20일 천진총영사로 근무하던 그를 만난 것을 보면 둘 사이가 매우 친밀했던 것을 알 수 있다.⁷⁵⁾ 호리우치는 1934년 11월 6일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조선총독부관방 외사과장에게 “氏는 오랫동안 남경 외교부에 근무하고 그 사이 과장 및 국장으로서 우리 공사관 기타 일본측과 접촉 연락을 담당해온 일본통입니다. 동 씨 착임 시는 편의의 제공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⁷⁶⁾ 또한, 히다카 신로쿠로(日高信六郎) 외무대신관방인사과장은 11월 8일 다나카 외사과장에게 “범한생씨는…일본 관계 사무에 종사하여 (만주)사변 때도 오로지 피차의 연락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 후에도 늘 양국 간의 친선에 노력하고 있는 인물로 저와는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잘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⁷⁷⁾

범 총영사는 경성 착임 직후인 12월 17일 조선히텔에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를 초청한 만찬에서, “중일의 친선은 즉 동양평화의 근본기초

74) 왕영진이 남경 외교부에서 근무할 때인 1934년, 그는 범한생의 추천으로 국민당에 가입했다(왕용진 저, 앞의 책, 43쪽).

75) 『堀内總領事談』, 『동아일보』, 1937.12.23.

76) 堀内干城 中華民國上海公使館書記官이 田中武雄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長에 보낸 공문(1934.11.6.), 『昭和九年 外事課 領事館往復綴(各國)』, 국가기록원소장.

77) 日高信六郎 外務大臣官房人事課長이 田中武雄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長에 보낸 공문(1934.11.8.), 『昭和九年 外事課 領事館往復綴(各國)』, 국가기록원소장.

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일의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 금후 나는 이 방침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우가키 총독은 답사에서, “지금 범 총영사는 열심히 중일의 친선을 강조하셨다. 나도 지극히 동감하는 바다. …다만 양국민은 관용과 활달한 정신으로 서로 반성하고 서로 양보하여 더욱더 친선을 도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⁸⁾ 이러한 범 총영사에 대해 조선총독부도 “그태도 매우 친일적으로 일본정부 요인 및 本府에도 자주 접촉, 밀접한 연락을 취했다.”고 평가할 만큼 ‘친일’적인 총영사였던 것은 분명하다.⁷⁹⁾ 그리고 1935년 9월 본국으로 휴가차 귀국하여 남경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당유임(唐有壬) 외교부 차장에게 친일정책 적극화를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⁸⁰⁾ 또한 범 총영사와 가깝게 지내던 주경성프랑스영사관의 추렌 영사는 12월 17일 그의 임시정부 참가 소식을 접하고, “범 총영사는 친일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는 견해를 피력했다.⁸¹⁾

남경국민정부 외교부는 이러한 범 총영사의 ‘친일’적인 태도를 경계, 1936년 6월 그와 완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일본 하코다테영사 출신의 능만수(凌曼壽)를 경성총영사관 영사로 파견했다. 그의 영사 착임 후 둘 사이의 의견은 늘 충돌하여 확집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노구교사건 발발 직후 화교 귀국을 둘러싼 양자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능 영사는 8월

78) 一記者, 「中華民國范總領事の披露宴に於ける范總領事と宇垣總督の應酬」, 『朝鮮及滿洲』(1935년 1월號), 朝鮮及滿洲社, 1935.1, 48쪽. 이 기사는 범 총영사를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출신으로 소개했다.

79) 朝鮮總督府警務局(1937), 「在留支那人ノ狀況」, 『昭和十二年 第72回帝國議會說明資料』(북각판,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 不二出版, 1994, 408-409쪽).

80) 「범한생 총영사 친일을 역설」, 『조선중앙일보』, 1935.9.5.

81)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1.19.), <支那人ノ動靜>, 「治安狀況」 第38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8일 본국으로 귀환 조치되었다.⁸²⁾ 왕영진은 그의 수기에서 범 총영사는 능 영사를 귀국 조치한 이유로 미나미 총독의 비서인 오다(小田)와 밀통한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범 총영사가 정적인 능 영사를 축출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밝혔다.⁸³⁾

이처럼 범 총영사의 친일적 성향을 보여주는 사실을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가 항일을 표방한 장개석 국민정부에 반대한 것은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또 장개석 국민정부와 국민당 인사 가운데 반공사상을 가진 인사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범 총영사의 반공적인 태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범 총영사가 ‘친일반공’사상만으로 임시정부 참가를 선언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한 사상을 가진 중국의 외교관은 당시 많았지만, 범 총영사와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은 외교관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범 총영사가 오색기 환기사건 때 영사관원을 설득하면서 한 발언이 주목된다.

“내가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난 결코 한간이 되고 싶은 게 아니네. 다만 지금은 조선 내 영사관 전부를 일본 군경이 완전 장악한 채 폐쇄시켜 버리는 바람에 움썅달썅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무턱대고 철수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군들도 알다시피, 우린 정부와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 영사관 운영비도 없고 자네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네. 그런데도 대사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교민들한테 돈을 빌려 생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야말로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야. 나도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항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나라도 베이징임시정부에 참여해 영사관 경비와 자네들의 생활비라도 해결해야

82) 朝鮮總督府警務局(1937), 앞의 자료, 409쪽.

83) 왕용진 저, 앞의 책, 61-62쪽.

겠다는 것이었네.……지금 벌써 6, 7만의 교민들이 귀국했네. 그렇지만 아직도 그만큼의 교민들이 이곳에 남아 있어. 따라서 우리가 철수해버리면 그들은 누굴 믿고 생활하겠나? 이게 내가 자네들이 말하는 괴뢰조직에 참여하게 된 이유이네.”⁸⁴⁾ 또한 그는 “난 베이징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군과 팔로군의 총칼 아래에서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걸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네.”⁸⁵⁾

범 총영사가 영사관원에 밝힌 임시정부 참가 명분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총영사관이 처한 경제적 곤궁한 상황의 타개를 위함이었다. 장개석 국민정부의 외교부와 주일대사관은 조선의 각 영사관의 철수를 명령하지 않은 채 경비 송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노구교사건 발생 이전인 6월의 조선의 각 공관 경비 송금액은 총 3,900.30원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7월은 3,798.80원, 9월은 3,667.17원, 10월은 3,410.21원, 11월은 2,741.50원으로 점차 감소했다.⁸⁶⁾ 12월에 들어서는 본국으로부터의 송금이 완전히 끊어졌다. 범 총영사는 각 관원으로 하여금 교민에게 생활비를 빌려 보라고 하여, 왕용진은 경성중화요리조합장인 정원간(丁元幹)으로부터 2천원을 빌려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⁸⁷⁾ 주경성미국총영사관의 배례유 총영사도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 지지선언을 두고, “지나 정부는 현재 급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내부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에도 동기가 숨어있다고 인정된다.”⁸⁸⁾고 말한 것을 보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84) 왕용진 저, 앞의 책, 89쪽.

85) 왕용진 저, 앞의 책, 83쪽.

86)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1.19.), <支那人ノ動靜>, 『治安狀況』第38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87) 왕용진 저, 앞의 책, 67-68쪽.

88)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24.), <京城駐在中國總領事館范漢生ノ行動ニ對スル外國公館員ノ言動>, 『治安狀況』第4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그러나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 선언은 상기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범 총영사는 노구교사건 발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9일 조선총독부를 방문하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장개석 남경국민정부 내 노구교사건과 관련해 왕정위, 하응흠(何應欽)과 같은 항쟁중지론자와 대일주전론자 간의 치열한 대립양상을 소개한 후, “나는 본국 주전론자로부터 친일파로 간주되어 남경 거주 자녀는 박해를 피해 이미 상해로 피난한 상황이다. 당 任地에는 나와 유아만이 있다. 사건이 확대될 경우는 남경으로 귀국하는 것은 일신상에 위험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세력범위인 북평, 천진 방면에 피난하려 한다. 그때는 응분의 배려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⁸⁹⁾

즉, 범 총영사는 이미 8월 9일 단계에서 자신은 남경으로 돌아가더라도 친일파로 몰려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 유지를 우선하여 조선총독부 당국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이에 조선총독부 당국자는 “그러한 경우 일신상의 건에 대해서는 고려할 것이니 충분히 평안히 직무에 노력하라”고 답했다.⁹⁰⁾

범 총영사의 가족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영사의 부인은 왕귀정(王貴貞)이었다. 둘 사이에는 7명의 자녀가 있었다. 노구교사건 발발 당시 경성총영사관에는 범 총영사와 그의 막내 딸인 범려옥(范麗玉) 만이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은 모두 중국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 총영사가 임시정부 지지선언을 한 것은 가족의 신변에 위험을 가하는 것이기에 일본 당국은 이점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으며, 훈장 수여 이유에도 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89) 朝鮮總督府가 탁무성에 보낸 극비공문(1937.8.9.), 「中國總領事范漢生來訪ニ關スル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3023888900.

90) 朝鮮總督府가 탁무성에 보낸 극비공문(1937.8.9.), 「中國總領事范漢生來訪ニ關スル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3023888900.

장개석 국민정부는 “同人의 일족을 살육하여 친일적인 분자가 이를 보고 이반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포박령을 냈다.”⁹¹⁾ 당시 경성에서 발행되던 『京城日報』는 ‘빛나는 때의 주역 범한생씨를 감싸는 고민 오색기를 장식하는 비화’, ‘重園下の 처자 8명 그 운명은 지금 풍전등화’, ‘지금 처자 등 안중에 없다 강력히 말하는 범 총영사’와 같은 표제의 기사를 특집으로 게재했다.⁹²⁾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일본 척무성 비밀문서에는 가족의 안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 기사는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그의 부인을 비롯한 자녀는 전원 중국을 탈출하여 무사히 경성에 도착했다.

범 총영사의 자제 가운데 장남 범도화(范道華)와 딸 범춘옥(范春玉)은 1938년 범 총영사가 조선총독부에 요청하여 일본 외무성 외곽단체인 일화학회(日華學會)가 운영하는 동아학교(東亞學校)에 입학했다.⁹³⁾ 두 명은 외무성으로부터 월 55원의 유학보조금을 수령하는 특종유학생의 특혜를 받았다.⁹⁴⁾

91) 内閣總理大臣東條英機(1943.6.26.), 「元神戶駐在中華民國總領事范漢生敘勳ノ件」, JACA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10113472800.

92) 「華やかな時の主役范漢生氏を包む憂悶 五色旗を彩る秘話」, 「重園下の妻子8名 その運命は今や風前の燈」, 「今, 妻子など眼中にない 力強く語る范總領事」, 『京城日報』, 1938.1.12.

93) 이 학교는 1925년 일화학회에 의해 유학생예비교육기관으로서 동아고등예비학교(東亞高等豫備學校)로 설립되고, 1935년에 동아학교로 개칭되어 경영되었다. 일화학회는 1918년 4월 일본에서 유학하는 중국인유학생에게 각종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관계 시찰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21년 문부대신과 외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이 되었고 문부성과 외무성으로부터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1937년에는 ‘대지문화사업특별회계법(對支文化事業特別會計法)’이 제정되어 외무성이 이 사업을 관할하는 문화사업부가 설치되었고, 이후 동아학교는 문화사업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외무성에서 국고보조를 받았다(大里浩秋, 「日華學報」目次, 『神奈川大學人文學研究所報』38, 神奈川大學人文學研究所, 2005.3, 1-2쪽).

94) 外務省文化事業部(1938.4.7.), <日華學會ノ特殊留學生養成事業費支給ニ關スル高裁案>, 「特種留學生范道華學費補給」,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5015273900.; 細川護立日華學會會長이 蜂谷輝雄外務省文化事業部長에 보낸 공문(1938.5.19.), <特殊

이처럼 범 총영사는 대외적으로는 장개석의 항일용공정책을 반대하고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영사관원과 교민 보호를 임시정부 참가의 원인으로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귀국 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고 임시정부지지 시 일본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했던 것이다.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로의 전향은 이러한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범한생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을 중심으로 각 영사관과 화교 사회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은 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범 총영사가 조선화교의 귀국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다 왜 갑자기 임시정부를 선언하게 되었는지는 두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장개석의 항일용공정책 반대와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영사관원과 교민 보호를 임시정부 참가의 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그는 1937년 8월 초 ‘친일가’인 자신이 귀국하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조선총독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서 항일용공정책 반대만이 그의 전향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범 총영사는 전향 후 자녀의 일본 유학 특혜, 공사 대우의 경성총영사의 직함을 받았으며, 일본 정부 훈장을 받는 특혜를 받았다. 고베총영사 퇴임 후에는 왕정위 남경국민정부의 화북전력공사(華北電力公司) 이사장을 역임했다.⁹⁵⁾ 그러나 일

女子留學生范春玉學費補給申請ノ件>, 「特種女子留學生范春玉學費補給」,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5015274000.

95) 華僑志編纂委員會 編, 앞의 자료, 169쪽.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화교 사회의 변동

본 패전 후 그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다.

경성총영사관 오색기 계양 사건은 기존 연구에서 경찰과 헌병대의 협조로 이뤄졌다고 언급되었지만, 이번의 검토에 의해 조선군사령관이 헌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이 비밀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범 총영사 주도의 환기사건의 과정도 당시 오색기 계양을 반대하다 체포되어 추방된 팽운태의 잡지 기고문과 왕영진의 수기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

조선의 영사관원 가운데 귀국하지 않고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 후 조선 영사관의 핵심 관원으로 활동한 인물이 있었다. 그들이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검토한 결과, 범 총영사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반공사상 그리고 부모와 부인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신변보장을 받기 위한 것 등이 작용했다.

한편, 조선화교 사회의 임시정부 지지선언이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난 원인은 관할 영사관의 책임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크게 작용했다. 진남포영사관의 장의신 영사는 범 총영사의 임시정부 지지선언 직후 관할 지역 화교를 이끌고 참가를 선언했다. 진남포영사관 관할은 평안남도과 황해도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했을 뿐 아니라 중화상회 조직을 신민회 조직으로 바꾸었다.

주제어 : 범한생, 장개석, 경성총영사관, 친일활동, 조선화교, 조선총독부, 조선헌병대사령부, 중화민국임시정부, 청천백일기, 오색기, 환기사건.

(논문투고: 2018.12.09. / 논문심사완료: 2018.12.22 / 논문게재 확정일: 2018.12.24)

참고문헌

1. 사료

(1) 아시아歷史資料센터 문서

朝鮮總督府가 拓務省에 보낸 극비공문(1937.8.9), 「中國總領事范漢生來訪ニ關スル件」, JACAR(아시아歷史資料센터) Ref.A03023888900.

小磯國昭朝鮮軍司令官이 二宮晉一朝鮮憲兵隊司令官에 보낸 명령(1937.12.28. 정오), 「京城駐劄支那總領事援助に關する件」, JACAR(아시아歷史資料센터) Ref.C01004555300.

松澤外務部長이 相場外務省理事官에 보낸 공문(1938.3.1.), 「特種留學生范道華學費補給申請ノ件」, JACAR(아시아歷史資料센터) Ref.B05015273900.

相場外務省理事官이 松村外務省東亞局第1課事務官에 보낸 공문(1938.3.20.), 「特種留學生范道華學費補給申請ノ件」, JACAR(아시아歷史資料센터) Ref.B05015273900.

細川護立日華學會會長이 蜂谷輝雄外務省文化事業部長에 보낸 공문(1938.3.30.), 「特種留學生范道華學費補給申請ノ件」, JACAR(아시아歷史資料센터) Ref.B05015273900.

外務省文化事業部(1938.4.7.), <日華學會ノ特殊留學生養成事業費支給ニ關スル高裁案>, 「特種留學生范道華學費補給申請ノ件」, JACAR(아시아歷史資料센터) Ref.B05015273900.

細川護立日華學會會長이 蜂谷輝雄外務省文化事業部長에 보낸 공문(1938.5.19.), <特殊女子留學生范春玉學費補給申請ノ件>, 「特種女子留學生范春玉學費補給申請ノ件」, JACAR(아시아歷史資料센터) Ref.B05015274000.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학교 사회의 변동

松澤外事部長이 堀内外務省東亞局長에 보낸 공문(1940.3.28.), 「在京城支那領事館敷地關係」,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B14090642300.

外務省東亞局長이 諏訪外事部長에 보낸 공문(1940.8.6.), <在京城支那總領事范漢生ノ取扱ニ關スル件>, 「京城駐在中華民國總領事并同館員」,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B15100379800.

諏訪外事部長이 堀内外務省東亞局長에 보낸 공문(1941.1.21.), 「在京城支那領事館敷地關係」,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B14090642300.

諏訪外事部長이 松岡外務大臣에 보낸 공문(1941.1.30.), 「在京城支那領事館敷地關係」,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B14090642300.

內閣總理大臣東條英機(1943.6.26.), 「元神戶駐在中華民國總領事范漢生毅勳ノ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A10113472800.

(2) 경성지방법원검사국 문서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0.15.), <京城總領事范漢生ノ動靜>, 「治安狀況」第3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1.19.), <支那人ノ動靜>, 「治安狀況」第38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3.), <京城駐在中國總領事范漢生>, 「治安狀況」第40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24.), <京城駐在中國總領事館范漢生ノ行動ニ對スル外國公館員ノ言動>, 「治安狀況」第4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24.), <鎮南浦駐在領事張義信>, 「治安狀況」第4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7.12.24.), <仁川辦事處顧問王成鴻>, 『治安狀況』第43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朝鮮總督府警務局(1938.1.8.), <中華民國臨時政府ニ對スル鮮內中國公館ノ狀況>, 『治安狀況』第44~47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1938.2.23.), <新政權歸屬後ニ於ケル中國人ノ動靜>, 『治安狀況』第44~47報,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전화보고(1937.12.24.), <范漢生夫人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전화보고(1937.12.28.), <元中國總領事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8.), <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9.), <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7.12.29.), <仁川辦事處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慶尙南道警察部長에 보낸 공문(1937.12.31.), <仁川辦事處員ノ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학교 사회의 변동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慶尙南道警察部長에 보낸 공문(1938.1.1.), <中國大使館ヨリ來電ノ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8.1.15.), <東晉中國人ノ新政權歸屬於ケル動靜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8.1.31.), <京城中國總領事館ノ動靜其他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京畿道警察部長이 警務局長에 보낸 공문(1938.2.5.), <京城中國總領事館ノ動靜其他ニ關スル件>, 「思想ニ關スル情報8」, 『경성지방법원검사국문서』, 국사편찬위원회소장.

(3) 조선총독부외사과 문서

堀内干城 中華民國上海公使館書記官이 田中武雄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長에 보낸 공문(1934.11.6.), 『昭和九年 外事課 領事館往復綴(各國)』, 국가기록원소장.

日高信六郎 外務大臣官房人事課長이 田中武雄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長에 보낸 공문(1934.11.8.), 『昭和九年 外事課 領事館往復綴(各國)』, 국가기록원소장.

조선총독부외무과(1942.1.1.), 「在朝鮮各國領事館表」, 『外務部 昭和17年 領事館關係』, 국가기록원소장.

(4) 기타 문서

邵毓麟 주한국대표가 외교부에 보낸 공문(1946.5.4.), <僞組織駐韓各領事館職員名單>, 「韓國僑務案」, 『外交部檔案』, 대만국사관소장(분류

번호 05000, 0670-4460).

旅鮮中華商會聯合會, 『旅鮮中華商會聯合會章程』, 『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 1938.7.26.

澎運泰 著·朝鮮總督府警務局 譯, 『朝鮮ニ於ケル護旗奮闘經過』, 『朝鮮出版警察月報』117號, 朝鮮總督府, 1938.4.30.

2. 연구 논저

(1) 한국어

김희신, 『화교, 화교 네트워크와 駐韓使館』, 『중국사연구』 제89집, 중국사학회, 2014.4.

왕용진 저·송승석 역·왕칭더 감수, 『그래도 살아야 했다: 悲慘回憶』, 학교방, 2017.

이은상, 『중일전쟁 시기 원산화교의 동향과 화교경제』, 『사충』 90, 고려대학교사학회, 2007.1.

이정희, 『중일전쟁과 조선화교: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35,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7.

이정희, 『중일전쟁 시기 조선화교의 항일활동』, 『동양사학연구』 139, 동양사학회, 2017.6.

(2) 중국어

漢城華僑學校 編, 『漢城華僑學校概況』, 漢城華僑學校, 1941.

徐友春 主編, 『民國人物大辭典 增訂版 上』, 河北人民出版社, 2007.

楊韻平, 『汪政權與朝鮮華僑(1940~1945): 東亞秩序之一研究』, 稻鄉, 2007.

楊紹權, 『駐朝鮮各地領事參加偽政權的經過』,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全國委員會文史和學習委員會 編, 『文史資料選輯合訂本』第48卷(總140-142輯), 2011.

(3) 일본어(발행연도순)

大里浩秋, 「『日華學報』目次」, 『神奈川大學人文學研究所報』 38, 神奈川大學人文學研究所, 2005.3.

菊池一隆, 『戰爭と華僑』, 汲古書院, 2011.

小島昌太郎, 『支那最近大事年表』, 有斐閣, 1942.

出口晴久, 「日中戰爭期における神戸華僑の實態と動向」, 『東洋史論』 第9號, 東アジア史研究會, 1996.1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第1卷』(복각판), 不二出版, 1994.

宮田節子 編, 『高等外事月報』, 不二出版, 1988.

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 青木書店, 2005.

Reference

1. Historical materials

(1) Documents Owned by Japan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JACAR)

Cultural Exchange Division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April 7, 1938), “Tokushu Ryūgakusei Fàn Dào Huá Gakuhi Hokyū Shinsei No Ken“, Ref.B05015273900.

From Bureau of East Asia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Suwa of Chief director of Foreign Affairs, Chosen Sotoku-fu(August 6, 1940), “Zaikkeijo Shinasōryōji Fàn Hàn Shēng No Toriatsukai Ni Kansuru Ken“, Ref. B15100379800.

From Chosen Sotoku-fu to Ministry of Colonial Affairs(August 9, 1937), “Chūgoku Sōryōji Fàn Hàn Shēng Ni Kansuru Ken“, Ref. A03023888900.

From Hosokawa Moritatsu of Institute president of Japan and China to Hachiya Teruo of director of Cultural Exchange Division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March 30, 1938), “Tokushu Ryūgakusei Fàn Dào Huá Gakuhi Hokyū Shinsei No Ken“, Ref. B05015273900.

From Hosokawa Moritatsu of Institute president of Japan and China to Hachiya Teruo of director of Cultural Exchange Division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May 19, 1938), “Tokushu Joshi Ryūgakusei Fàn Chūn Yù Gakuhi Hokyū Shinsei No Ken“, Ref. B05015274000.

From Koiso Kuniaki of Commander of Chosen Military to Nimiya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학교 사회의 변동

Xinichi of Commander of Chosen Military Police(December 28, 1937), “Keijo Chūsatsu Sōryōji Enjo Ni Kansuru Ken”, Ref. C01004555300.

From Matsuzawa of Chief director of Foreign Affairs, Chosen Sotoku-fu to Soba of the secretary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March 1, 1938), “Tokushu Ryūgakusei Fàn Dào Huá Gakuhi Hokyū Shinsei No Ken”, Ref. B05015273900.

From Matsuzawa of Chief director of Foreign Affairs, Chosen Sotoku-fu to Horiuchi of Bureau Chief of East Asia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March 28, 1940), “Zaikeijō Ryōjikan Shikichi Kankei”, Ref. B14090642300.

From Suwa of Chief director of Foreign Affairs, Chosen Sotoku-fu to Horiuchi of Bureau Chief of East Asia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January 21, 1941), “Zaikeijō Ryōjikan Shikichi Kankei”, Ref. B14090642300.

Tojo Hideki of Prime Minister(June 26, 1943), “Moto Kobe Chūzai Chūkaminokoku Sōryōji Fàn Hàn Shēng Jokun No Ken”, Ref. A10113472800.

(2) Documents of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Keijo Provincial Court owned b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From Chief of the Kyonggi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December 24, 1937), ‘Fàn Hàn Shēng Fujinno Dōsei Ni Kansuru Ken’, *Shisō Ni Kansuru Jōhō*, vol. 8.

From Chief of the Kyonggi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December 28, 1937),
'Moto Chūgoku Sōryōji No Dōsei Ni Kansuru Ken', *Shisō Ni Kansuru Jōhō*, vol. 8.

From Chief of the Kyonggi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December 28, 1937),
'Kakyō Dantai No Dōsei Ni Kansuru Ken', *Shisō ni Kansuru jōhō*, vol. 8.

From Chief of the Kyonggi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December 29, 1937),
'Kakyō Dantai No Dōsei Ni Kansuru Ken', *Shisō Ni Kansuru Jōhō*, vol. 8.

From Chief of the Kyonggi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December 29, 1937),
'Jinsen Benzisyo No Dōsei Ni Kansuru Ken', *Shisō Ni Kansuru Jōhō*, vol. 8.

From Chief of the Kyonggi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December 31, 1937),
'Jinsen Benzisyojin No Dōsei Ni Kansuru Ken', *Shisō Ni Kansuru Jōhō*, vol. 8.

From Chief of the Kyonggi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 and Kyongsangnam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January 1, 1938), 'Chūgoku Taishikan Yori Raiden No Ken', *Shisō Ni Kansuru Jōhō*, vol. 8.

From Chief of the Kyonggi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January 15, 1938),
'Dosin Chūgokujin No Shin Seiken Kizoku Ni Okeru Dōsei ni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학교 사회의 변동

kansuru ken', *Shisō Ni Kansuru Jōhō*, vol. 8.

From Chief of the Kyonggi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January 31, 1938), 'Keijo Chūgoku Sōryōjikan No Dōsei Sono Hoka Ni Kansuru ken', *Shisō Ni Kansuru Jōhō*, vol. 8.

From Chief of the Kyonggi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February 5, 1938), 'Keijo Chūgoku Sōryōjikan No Dōsei Sono Hoka Ni Kansuru ken', *Shisō Ni Kansuru Jōhō*, vol. 8.

Peace S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October 15, 1937), 'Keijo Sōryōji Fàn Hàn Shēng No Dōsei', *Chian Jōkyō*, vol. 33.

Peace S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November 19, 1937), 'Shinajin No Dōsei', *Chian Jōkyō*, vol. 38.

Peace S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December 3, 1937), 'Keijo Chūzai Chūgoku Sōryōji Fàn Hàn Shēng', *Chian Jōkyō*, vol. 40.

Peace S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December 24, 1937), 'Keijo Chūzai Chūgoku Sōryōji Fàn Hàn Shēng No Kōdō Ni Taisuru Gaikoku Kōkan'in No Gendō', *Chian Jōkyō*, vol. 43.

Peace S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December 24, 1937), 'Jinnampo Chūzai Ryōji Zhāng Yì Xīn', *Chian Jōkyō*, vol. 43.

Peace S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

fu(December 24, 1937), ‘Jinsen Benjisyo Komon Wáng Chéng Hóng’, *Chian Jōkyō*, vol. 43.

Peace S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January 8, 1938), ‘Chūkaminkoku Rinji Seifu Ni Taisuru Chūgoku Kōkan No Jōkyō’, *Chian Jōkyō*, vol. 44-47.

Peace S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Bureau of Chosen Sotoku-fu(February 23, 1938), ‘Shin Seiken Kizokugo Ni Okeru Chūgokujin No Dōsei’, *Chian Jōkyō*, vol. 44-47.

(3) Documents of Foreign Affairs Section of Chosen Sotoku-fu own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reign Affairs Section of Chosen Sotoku-fu(January 1, 1942), “Zai Chōsen Kakkoku Ryōjikanhyō”, Shōwa 17 Nen Ryōjikan Kankei.

From Hidaka Shinrokuro of the director of Personnel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Tanaka Takeo of the chief of the Foreign Affairs Section, Chosen Sotoku-fu(November 8, 1934), “Shōwa Kyū Nen Gaijika Ryōjikan ōfuku Tsuzuri (kakkoku)”.

From Horiuchi Dateki of the Secretary of the Japanese legation in Shanghai to Tanaka Takeo of the chief of the Foreign Affairs, Chosen Sotoku-fu(November 6, 1934), “Shōwa Kyū Nen Gaijika Ryōjikan ōfuku Tsuzuri (kakkoku)”.

(4) Other documents

Associations of Chinese Chamber of Commerce in Korea(July 26, 1938), ryosen chuka shōkai rengokai shōtei, owned by association of overseas Chinese in Incheon

중일전쟁시기 범한생(范漢生)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조선학교 사회의 변동

From shào yù lín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China)(May 4, 1946), nise soshiki chūkan kaku ryōjikan shokuinmeitan, Archiv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aiwan) owned by Academia Historica(classification number 05000, 0670-4460)

Péng Yùn Tàì(April 30, 1938), Chōsen ni oke ru Mamoru hata funtō keika, Chōsen shuppan keisatsu geppō vol.117.

2. Books and thesis

1) Korean

Kim Hūisin, “Hwa-kyo, Hwa-kyo Ne-t’ū-wō-k’ū-wa Chu-han-sa-kwan”, *Journal of Chinese Studies*, vol. 89, 2014.

Wáng Yǒng Jīn, *Kū-lae-to Sal-a-ya Haess-ta: Pich’amhoeök*, hakgobang, 2017.

YI Eun-sang, “Chung-il-chōn-chaeng Si-ki Wōn-san-hwa-kyo-ūi Tong-hyang-kwa Hwa-kyo-kyōng-che”, *Sa Chong(The Historical Journal)*, vol. 90, 2007.

YI Jung-hee, “Chung-il-chōn-chaeng-kwa Cho-sōn-hwa-kyo: Cho-sōn-ūi Hwa-kyo-so-hak-kyo-lül Chung-sim-ū-lo”, *Journal of Studies of Modern Chinese History*, vol. 35, 2007.

YI Jung-hee, “Chung-il-chōn-chaeng Si-ki Cho-sōn-hwa-kyo-ūi hang-il-hwal-tong”, *Journal of Asian Historical Studies*, vol. 139, 2017.

2) Chinese

Overseas Chinese School of Seoul ed., *Hànchéng Huáqiáoxuéxiào*

Gàikuàng, 1941.

Xú Yǒu Chūn ed., *Mínguó rénwù Dàcídiǎn Zēngdìngbǎn shàng*, Hebei People Publishing House, 2007.

Yáng Shào Quán, “Zhùcháoxiāngèdì Lǐngshì Cānjiāwéizhèngquándé Jīngguò”, Zhōngguó Rénmín Zhèngzhìxiéshānghuìyì Quánguó-wěiyuánhùi Wénshìhéxuéxíwěiyuánhùi ed., *Wénshìzìliào Xuǎnjí Hédingběn*, vol.48, 2011.

Yáng Yùn Píng, *Wāng Zhèngguányǔ Cháoxiān Huáqiáo(1940~1945): Dōngyàzhìxùzhīyī Yánjiū*, Dào Xiāng Publishing, 2007.

3) Japanese

Chosen Sotoku-fu, *Chōsen sōtokufu Teikokugikai Setsumei Shiryō dai Ikar*(reprinted), Fuji Shuppan, 1994.

Deguchi Haruhisa, “Nichichūsensōki Ni Okeru Kobe Kakyō No Jittai To Dōkō”, Toyoshiron vol. 9, 1996.

Ōsato Hiroaki, “‘Nikka Gakuhō’ Mokuji”, *Bulletin of Institute for Humanities Research*, vol. 38, The Institute for Humanities Research of Kanagawa University 2005.

Kikuchi Kazutaka, *sensō to kakyō*, Kyuko Publishing, 2011.

Kojima Masataro, *Shina Saikin daiji nenpyō*, Yuhikaku Publishing, 1942.

Miyata Setsuko ed., *Kōtō Gaiji Geppō*, Fuji Shuppan, 1988.

Yasui Sankichi, *Teikoku Nippon To Kakyō*, Aoki Syoten, 2005.

Studies on the pro-Japanese movement of Fan
Han-sheng of consul-general of Seoul and Overseas
Chinese Society in Korea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YI, Jung-hee

This paper aims to analyse pro-Japanese movement's cause of Fan Han-sheng of consul-general of Seoul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Fan Han-sheng visit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to expressed his will to participate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on December 17. After he proclaimed, he visited Beijing to obtain their approval to become a new government's consul-general at Seoul from Wang Ke-min and Japanese Northern China Army. In spite of officers' resist of Chinese Consulate General at Seoul, he forced to switch party flag and emblem of the Kuomintang to Five colored-Flags of new government with the assistance of Japanese military police headquarters in Korea. On December 29, after having successfully raised the Five-colored Flag, he ordered each consulate to raise the flag. Therefore, by January 4, 1938, all consulates raised the Five-colored Flag, in effect closing down all offices of Chiang Kai-shek's National Government. When the raising of the Five-colored Flag was complete, he forced all the Chinese Chamber of Commerce around the nation to voice support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beginning with Chinese Chamber of commerce in Seoul and Incheon, all of them are recorded as having announced their support be the end of January 1938. On February 3, 1938, He called a meeting of repre-

sentatives of overseas Chinese organizations, summoning 22 heads of Chinese Chamber of Commerce from around the country, and organized the Federation of Chinese Chamber of Commerce Association in colonial Korea, the help realize the provisional government's credo of 'peace and anti-communism'. On the same day, he also held newly assigned consuls' meeting. There are three factors in his turning to provisional government from Chiang Kai-shek's nationalist government. Firstly, he was opposed to Chiang Kai-shek's anti-Japanese policy and pro-communism. Secondly, he was willing to help their consuls and overseas Chinese in Korea. Thirdly, he made a judgement that he and his families's life were not able to be guaranteed by Chiang Kai-shek's nationalist government.

Key Words : Fan Han-sheng, Chiang Kai-shek, Chinese Consulate General at Seoul, pro-Japanese movement, overseas Chinese of Korea in modern times, Korean Government General (Chosen Sotoku-fu), Japanese army headquarters in Korea, Japanese military police headquarters in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1937-40), party flag and emblem of the Kuomintang (Chinese Nationalist Party), Five colored-Flags, flag switching Incident.